

방탄소년단 '빌보드200' 두번째 1위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에서 두 번째 정상을 차지하며 또다시 K팝 역사를 새로 썼다.

3일 최신 차트를 미리 소개한 빌보드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발매된 방탄소년단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지난 5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로 '빌보드 200' 정상을 처음 밟았는데 이어 3개월여 만의 기록이다.

닐슨뮤직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지난달 30일까지 한 주 동안 앨범 수치 18만5000점을 달성했으며, 그중 14만 1000점은 실물 앨범 판매량으로 집계됐다.

총점 18만5000점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높은 점수다. 앞서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2월 발매한 '맨 오브 더 우즈'(Man of the Woods)가 29만3000점을, 아리아나 그란데가 최근 발매한 '스위트너'(Sweetener)가 23만1000점을 거둬 선두를 달렸다.

아울러 실물 앨범 판매량으로 획득한 14만1000점 역시 올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1위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맨 오브 더 우즈'(24만2000점)였으며 2위는 지난 6월 발매된 선 멘데스의 셸프 타이틀 앨범 '선 멘데스'(14만2000점)였다.

빌보드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를 잇는 방탄소년단 두 번째 1위 앨범으로 이들은 빌보드 1위를 차지

3개월만에 '러브 유어...'로 또 정상에

K팝 가수 최초·앨범 판매량 세계 3위

지한 유일한 K팝 가수일 뿐 아니라 한국 최초로 2개의 1위 앨범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어 음반이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건 2006년 남성 4인조 팝페라 그룹 일디보(Il Divo)가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으로 부른 앨범 '앙코라(Ancora)' 이후 12년 만이다. 또 단일 그룹이 1년 안에 '빌보드 200'을 두 번 석권하기는 2014년 영국 보이그룹 원다렉션 이후 4년 만의 기록이다.

'빌보드 200'은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 다운로드 횟수를 망라한 판매고를 기반으로 그 주의 가장 인기 있는 앨범 순위를 매긴다. 최신차트는 3일 노동절 휴일인 관계로 평소보다 하루 늦은 5일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한편, 5일 공개될 '빌보드 200'의 2위는 트래비스 스콧의 '아스트로월드'(Astroworld), 3위는 드레이크의 '스콜피온'(Scorpion), 4위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스위트너'(Sweetner), 5위는 니키 미나즈의 '퀸'(Queen)이 차지했다. 이어 포스트 말론(6위),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오즈나(7위), 총적으로 숨진 엑스엑스엑스엔터사(8위)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광주MBC, 5·18 다큐 DVD 제작

'두 개의 일기' '그의 이름은' 등 담다

광주MBC의 5·18 관련 다큐멘터리들이 DVD로 나왔다. 광주MBC는 5·18 다큐멘터리 5편을 담은 DVD '광주MBC 오월의 기록'을 발행했다. 이 DVD에는 '두 개의 일기', '그의 이름은',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 '추기경의 오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등 우리가 알아야 할 5·18의 역사를 기록했다.

지난 5월 방송된 '두 개의 일기'(연출 김철원, 구성 유희경, 촬영 박재욱)는 시민군의 대변인으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던 광주 윤상원 열사와 70년대 노동운동의 기록자가 됐던 대구 전태일 열사를 그들의 일기를 통해 조명했다.

지난해 방영된 '그의 이름은'(연출 김인정·김철원·최성영, 구성 김지연, 촬영 강성우)은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의 책임자를 추적했다.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후 당시 미 백악관에서 열린 관료들의 대책회의 내용을 정리한 수기 메모를 확보해 공개했다. 문의 062-360-2211. /백희준 기자 bhj@



빌보드는 ① 전통

적인 앨범 판매량(Traditional Album Sales) ②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rack Equivalent Albums·TEA) ③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treaming Equivalent Albums·SEA) 등 3가지를 섞어서 앨범 판매량을 나타낸다. 이때 음원 10곡을 다운로드하거나, 1500곡을 스트리밍 서비스받은 경우 전통적인 앨범 1장을 산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4~30일 한 주 동안 미국에서 18만5000장 상당을 팔았다. 이 가운데 14만1000장

이 실물 앨범 판매였으며, 나머지는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었다.

이처럼 디지털 소비를 적극 반영할 경우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순위 조작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열성 팬이 특정 가수의 앨범 전체를 여러 번 스트리밍하면 TEA, SEA 점수가 높게 나와 앨범 전체의 중요도가 부풀려질 수 있어서다.

빌보드도 이런 고민에서 자유롭지 않다.

/연합뉴스

빌보드 차트 산정 어떻게

앨범판매량·음원 다운로드 등

3가지 방식 섞어 순위 집계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정상을 석권하며 빌보드의 차트 산정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빌보드에 따르면 1894년 미국 뉴욕에서 창간한 빌보드는 1940년대부터 미국 대중음악의 인기 순위를 체계적으로 집계·발표해 공신력을 얻었다.

모든 음악 장르를 아울러 음반 판매량,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음원 다운로드,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매주 100여 가지 다양한 차트를 발표한다.

방탄소년단이 1위를 차지한 '빌보드 200'은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다.

EBS 가을개편...다양한 주제 '다큐프라임' 마련

'무진기행' 김승옥 '내 친구는 어디에' 방영

EBS TV는 온 가족과 호흡하는 지식 교양 프로그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 혁신 프로그램, 참신함과 실용정신이 돋보이는 다큐멘터리를 골자로 가을개편을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다큐멘터리에서는 고정된 형식을 벗고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다큐프라임' 라인업이 마련됐다.

삶의 한 단면을 포착하여 보는 이에게 울림을 주는 다큐멘터리도 있다. 뇌졸중으로 투병하는 소설 '무진기행'의 작가 김승옥이 '친구들과 마지막 밥 한 끼 먹기'란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아낸 '내 친구는 어디에'가 대표적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치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생결단 로맨스 (재)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40 SBS 뉴스
11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러블리 호러블리(재)		00 푸리가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토크콘서트 화통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신 노년 시대 4부작(재)		00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10m 공기권총 여자 외)	55 닥터 365
2	40 와일드 코리아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20 앙코르 UHD 특선 다큐 라이프 오브 독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0 프리파라 3 40 뽀뽀보 모야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10 푸리가 식사교실 4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00 생활의 달인 스페셜 40 2018 서울 드라마 어워즈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1 대 100(재)	00 5 MBC 뉴스 2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7	00 KBS 뉴스 7 35 전라도 매력청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썬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1 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습터	00 러블리 호러블리	00 사생결단 로맨스	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1	00 KBS 뉴스라인 4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엄마 아빠는 외계인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독립영화관	35 배틀 트립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로북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백치미(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섬섬옥수 필리핀 2부 숨겨진 보물섬 파나이>
08: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백반기행 2부 그리움의 발상>
09:00 뽀뽀뽀 뽀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큐프라임 <위대한 로마 2부>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22:45 조식포함 아파트
09:40 메디컬 다큐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츄	23:55 백치미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4:45 지식채널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해물 연두부찌개와 연두부 냉채>	16:45 당동명 유치원1~2	24:50 한국영화특선 <범죄와의 전쟁>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4일(음 7월 25일 己亥)

子	36년생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48년생 철저하면서도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60년생 단순한 잘 해도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있다. 72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 84년생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77, 93	午	42년생 마음을 편하게 가져다 되는 마당이다. 54년생 이목을 끄는 관심사가 생긴다. 66년생 거친 파동의 시기를 보낸 후에 진정될 것이다. 78년생 안타까움을 더하는 원인 요소가 발생할 것이다. 90년생 부차적인 면에서 파생되는 이익이 더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0, 79
丑	37년생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융통이 쉽지 않을 것이다. 49년생 자기당착에 빠질 수 있다. 61년생 중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으리라. 73년생 불편한 상황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고치는 것이 낫다. 85년생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가져야겠다. 행운의 숫자 : 62, 01	未	43년생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면서 꾸준히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낫다. 55년생 인내심을 발휘 했을 때 성과를 거두게 된다. 67년생 체면 따지지 말고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79년생 간단히 하라. 91년생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3, 67
寅	38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50년생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성국이다. 62년생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결실이 있을 것이다. 74년생 아주 가까이에 와 있으니 철저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자. 86년생 점진적인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9, 96	申	44년생 원점으로 회귀하는 형세라고 볼 수 있다. 56년생 수량이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될 것이다. 68년생 돌발적인 사태가 우려되므로 밤잠하지 말고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80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자. 92년생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66, 12
卯	39년생 보람찬 하루가 될 것이다. 51년생 의외로 쉽게 결정된다. 63년생 시작만 해 놓으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75년생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 볼 필요가 있다. 87년생 부담이 따를지라도 차체에 보완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82	酉	45년생 기존 상황을 재편성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다. 57년생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가 중요하다. 69년생 있다. 75년생 가장 나은 형태이다. 81년생 기본적인 환경과 여건의 조성이 급선무이다. 93년생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52, 62
辰	40년생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고민을 하게 되리라. 52년생 깔끔한 외관과 기교 속에 맹점이 숨어 있다. 64년생 치열하게 고생한 만큼 보람도 느낄 것이다. 76년생 전문가나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88년생 복잡해지는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73, 78	戌	34년생 줄곧 경사스런 일로 기쁨이 넘치리라. 46년생 선대의 유익에 힘입은 감정이 보인다. 58년생 알고도 내버려 둔다면 큰 코 다친다. 70년생 우연이나 천연의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82년생 맞대응하려 하지 말고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11, 45
巳	41년생 쌍방의 의사가 합쳐지는 흥분함이 보인다. 53년생 형식적인 절차는 사족일 수도 있다. 65년생 지혜가 있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리라. 77년생 알뜰함 속에서 화합함이 싹트는 법이다. 89년생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니 지켜보고만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82, 80	亥	35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47년생 타의에 좌우 되지 말고 주체적으로 임하면 그만이다. 59년생 원리 원칙대로 대처해야만 한다. 71년생 임시적인 현상에서 불과할 뿐이니 집착하지 마라. 83년생 대중소이라고 할 수 있으니 어렵잡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8, 4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